

태평양양주보

제 1146호

서기 1939년 9월 18일
단기 2929년 9월 18일

9/18, 1959

사장	최백련
주필	김창권
발행소	동지회관내
부정거리	93-1
대금	1년 10元
전화	850849

Oriental Collection

허시조호 소련수상 역사적 미국방문 미소의 친선관계를 소망

(와싱턴 9월 15일 발 에이 피) 「허시조호」 소련수상과 수행원 일행은 세계인의 증시하에 15일 오후 역사적 노릇 공로로 와싱턴 부근의 앤드루스 비행장에 도착.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환영사를 들은 후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친선관계를 소망하고 역사적 미국방문의 제일 보를 보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환영사중 미국은 미국민이 나라를 지배하고 평화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전쟁을 시작할 수는 없었다고 「허시」 수상에 말하고 정당하고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구하는 미국의 희망을 표명하였다.

이와같이 양거두는 역사적 교환방문의 벽두에서 세계여론의 지지를 얻을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 「허시」 조호는 소련수상은 소련이 달에 보내는 「라켓트」 경쟁에서 미국을 패부시킨 것을 표시하는 의미의 말을 하고 미국도 콧물에서 달에 도달할 것이라고 「안」 대통령에게 말하였다.

소련의 수위가 미국에 온 것은 이것이 처음이며 「두개의 세계」가 만년(萬年)이다.

국련 14회총회 개막

(와싱턴 본부 15일 발 에이 피) 국련제 14회총회는 15일 개회하였는데 오는 18일 「북반」 연설을 하도록 되어있는 「허시」 조호

UNIVERSITY OF HAWAII LIBRARY

HAWAIIAN NEWSPAPER STACKS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제 1면에 계속)

소련수상은 이 연설중에 세계적 「선제이순」을 일으킬 만하
고 극적 제안
을 증대중이라는 소문이 있다

소련의 내용을 잘 아는 외교관들은 믿지 않으나, 가
국련과 같은
대우대를 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련의 「라켓피」, 미국의 달도 달도 우주비행계획에 큰 성과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동경 14일 발, 모스크바) 소련이 제 2호 우주 「라켓트」는 드디어 모스크바
시간으로 14일 오전 11시 20분 14초 달에 도착하는데 성공하였다
「라켓트」의 달도 달에 정시각인 오전 11시 20분 14초
「조도엔방크」 천문대가 「라켓트」 신호의 정지를 파악하였다는 외전이
들어오므로 곧 모스크바 「푸라데르」이 「라켓트」의 달도 달을 발포
하루 이어서 「라스」 통신과 「모스크바」 방송이 성공의 보도를 전 세계에
발포하였다

이리하여 소련의 제 2호 우주 「라켓트」는 달도 달의 위대한 사명을
마치고 그 생명을 마쳤는데 달면에는 그 위엄의 상징인 「소련」
국가의 「표식」과 「1959년 9월」이라고 적힌 「표적」이 있어 영영히 기념
하게 되었다 이 성공은 지구로부터 달 천체에 날리는 우주비행
실현에 혁혁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의미를 키우며 세계각국으로
부터 노력이 평가되고 있다

달에 「선제이순」 설치 가능

14일 모스크바 방송에 의하면 제 2호 우주 「라켓트」의 달도 달에
관해서 「푸루코우오」 천문대 소장 「미하이로프」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푸루코우오」 천문대는 「라켓트」의 「나트라움」 구름의 형성 「선제이순」을
차별화하였는데 이 「선제이순」은 당초의 계획대로의 위치에 있었다
1 이 성공에 의해서 천문물리 관측을 기록하고 지구상에 전달하는
자동 「스테이슨」을 달에 설치하는 가능성이 실현적으로 나타났다고



(제 2면에 계속)

이러한 「스레이혼」은 인간의 근무하는 과학관측시설을 말하며 만년의 준비단계라고 하겠다.

인류의 전면회피에 미·소 평화협정소망 소련수상 원자력평화이용요구

(와싱턴 16일 발. 에이.피.) 「홀시조호」 소련수상은 16일 미국방문의 첫 증요연설에서 미소 양국은 원자력과 「라켓트」의 과학지식을 평화롭게 위해 쓰는 길을 찾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러하면 지구는 재와 무덤으로 덮힐 것이다 라고 연명하고 이러한 세계의 참사를 피하기 위한 양국간의 협정을 소망하였다.

군비축소 제안

「홀시조호」씨는 16일 밤 프레스 클럽의 주식회에서 연설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쌍방이 주장의 반에서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또 명후일 국련에서 연설할 때에는 군비축소문제도 신제안을 할 예정이며 이 제안이 군비축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동수상은 군비축소문제가 현대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였다.
「홀시조호」수상은 또 독일문제에 언급 서구측이 주장하는 동서 양독일의 재통일을 기다리라고 양독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도록 기대를 표시하였다.

중공의 국련가맹안 1년간 시도의 연기

(북경 국련본부 16일 발. 에이.피.) 국련운영위원회는 16일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공의 국련가맹안을 다시 일년간 시도의 연기를 연기할 13대 7 (기권 1)로 표결하였다. 동안 심의 연기는 미국이 제안한 것이다. 이 표결은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되나 총회의 승인은 확실시되고 있다.



소련의 달, 라켓트, 이 정무인 미국을 능가, 하와이 체류 과학자담

하와이에 체류중이었던 미국에서 유명한 우주학자 크라르트어릭 씨는 어제 밤 호놀룰루를 출발하여 미국으로 향하였는데, 출발처 기자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련의 달, 라켓트의 성공은 미국의 '앨라스'가 8백톤의 중량을 운반하였다는 '뉴스'가 정확하다고 하므로, 소련의 성공에 비할 것이 아니다.

어릭 씨는 또 소련의 성공은 우주 탐험에 일대 진보를 가져온 것이며 소련은 두 번의 발사에서 미국의 다섯 번의 발사를 훨씬 능가하는 성과를 냈다. 소련은 충분히 용의하여 자신을 번을 때까지 발표를 기다렸는데, 미국은 그리 하지 않았었다.

하와이 정무인, 와다노베, 테사만

하와이 대학 물리학 교수 '와다노베' 박사는 소련의 성공은 '라켓트', 경쟁에 있어서 소련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13일 첫 천의 안 볼, 다사양사양도 아, 대통령령 소명, 하와이 각도 공사포함

(와싱턴 13일 발, 에이.피.이) 아 이전 하와이 대통령은 13일, 내년 첫 월 말 로 끝나는 회계연도 중의 군사건축공사비 13억 7천 3백 90만 1천 2백불을 예산하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미국내와 해외의 군사기지에 있어서의 공사에 충당되는 것인데, 대통령령의 요구액보다 1억 9천 9백 33만 8천 8백불이 적다. 공사장, 하와이 관계의 것은 다음과 같다.

- 공군... 하와이노, 회부, 세르러, 스프링필드의
- 해군... 친주만 보급창, 해병대 항공기지, 라우라우레이, 와히아와 방공구
- 공군... 호놀룰루, 마우이, 카아이, 내쇼날, 가드, 아모리.



유엔총회 대표단을 결정
수석엔 조외무부장관

정부는 오는 9월 15일에 열리게 되는 제십사차 국제연합 정기총회에 파견할 우리나라 대표단을 일일 상오 정식 결정 발표하였다. 「조정환」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 대표 6명 관단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엔총회 대표단의 출발일정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으나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환문제 및 한국의 유엔가입문제 등 현안의 여러 한국관계문제가 상정된 의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유엔 본부에 도착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이 대표단은 1954년 제9차 유엔총회에 당시 외무부장관인 「변영태」씨가 참석할 후 두 번째로 「조」외무부장관이 유엔총회에 수석대표로 파견하게 되어 종래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표진이라고 관측하고 있어 대표들의 활약이 자못 기대되고 있다.

동대표단은 금명간 제1차 예비적인 준비회의를 갖고 금차 유엔총회에 대처할 제반문제를 협의의 할 것이다. 이날 발표된 유엔총회 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석대표 「조정환」외무부장관 대표 「양유찬」 주미 대사 대표 「임병직」 주유엔 대사 대표 「한표옥」 주미 공사 대표 「정운갑」 민의원 (자유당) 대표 「이병하」 민의원 (민주당) 대표 「김화란」 이화대학 총장 단원 「이수영」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단원 「오중정」 주노노루루 총영사 단원 「노신영」 주미대사관 1등서기관 단원 「송광석」 외무부 방교국 방교과장 단원 「이경훈」 유엔대표부 트등서기관

오호항 총영사 26일 뉴욕항발
정부에서 발표한바에 의하면 오중정 오호항 총영사

(제5년에 계속)

는 이번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십사차 유엔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오는二十六일 부인 동반하고 뉴욕으로 떠날 예정
이라한다. 온 총평사는 작년에도 우리나라 대표단
의 일원으로서 참석한바있으며 금년에도같은성
과를거두기를노호할한인교포들은 기대하고있다

어부송환만은 회책

「장」대표 일본의 회담태도를 지적

한일회담대표인 「장정근」씨는 二十七일 상호 자유당 당
우회에서 지난一주일 동안의 한·일 회담 경과를 보고
관다 음 기자단과 회견한 자리에서 「일본은 재일교포
복송계획을 실행하면서도 일본인 어부석방과 교역
재개를바라고있다」고 지적하고 일단 한·일 회담에서 재
일교포문제를 토의할것에 일본측이 동의하기는했
으나 앞으로 일본측의 성의 여하가 이문제 해결의
판건이라고 말하였다

「장정근」씨는 외교절충중인 문제이므로 공개할수
없는내용이 많다고 전제하고 지난一주일 동안의 회
담경과를 말하였다. 「장」대표는 재일교포의 복송
문제에 있어서 일본측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하고 그
들은 이번 북송계획을 피적과의 조인대로 실행하려
들면서도 일인 어부의 석방과 대한민국의 송환될것
을 희망하는 교포를 더 많이 남한으로 보낼것을 회
책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측은 대한민국
과의 교역재개도 희망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장」대표는 일본측의 회책에 대하여 우리한국측은
공산지역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적용할수없는 곳
이며 재일교포가 일본에 거주할수있는 역사적 배경등
으로 이루어 보더라도 북한공산지역으로 보낼수있다고 주장
하였다



